



목 차

- 공지 사항** ----- 1) 제 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안내
 2) 2016년 건강심리학회 제52차 춘계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연구회 소식 ----- 마음챙김-긍정심리연구회 12월 월례회

회원 투고 ----- 늙은 말의 지혜 (老馬之智) 로! (손정락 회원)

회원 소식 ----- 취임 및 수상 소식

손정락 회원 도서 출간 - 「수용전념치료(ACT) 은유(메타포) 모음집」

김청송 회원 도서 출간 -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DSM-5) 제2판」

김정호 회원 도서 출간 - 「마음챙김 명상 매뉴얼 : 이해, 성장,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

서수연 회원 도서 출간 - 「건강심리학 제9판」

최성진 회원 도서 출간 - 「심리평가로 심리치료하기: 사례가이드북」

발행인 서경현 | **편집인** 한경훈, 류혜라 | **전화** (02) 3399-3184 | **이메일** khpa1994@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대학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국제교육관 121호)



공지 사항

1) 제 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안내

Congress Theme :
**Health Research & Practice
 from Asia**



일시	2016년 7월 23일(토) - 24일(일)
장소	일본 요코하마
등록비	¥ 10,000 (일반인) / ¥ 5,000 (학생)
프로그램 1일차 (7월 23일)	
10:00 – 10:30	개회식
10:40 – 11:40	Keynote Lecture A
11:40 – 13:00	Asian Health Practices and Cultures Lunch
13:00 – 14:00	Kenote Lecture B
14:10 – 16:00	심포지움 A
16:10 – 18:00	심포지움 B
18:00 – 19:30	환영식 (welcome reception)
19:30 – 22:00	Business Meeting
프로그램 2일차 (7월 24일)	
9:00 – 10:00	Keynote Lecture C
10:10 – 12:00	심포지움 C
12:00 - 13:20	Asian Health Practices and Cultures Lunch
13:20 – 14:20	포스터 발표
14:30 – 15:00	폐회식

<Keynote Lecture 주제>

Health Intervention “How and for Whom? Integrat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Developing Effective Health Psychology Interventions”
Mental Health Promotion “Act-Belong-Commit: Lifestyle Medicine for Keeping Mentally Healthy”
Culture inclusive application of health psychology - Asian perspectives
Collectivistic Independence: A Road to Collective Flourishing
Cross-cultural Health Psychological Perspective of Eating Behaviors: Developing Cross-cultural Dietary Education for Sojourners

공지 사항

1) 제 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안내

< 제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지원 안내 >

'제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일부 수련생 혹은 대학원생에게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① 본 학회에 등록된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으로 한 학교(재학 혹은 졸업)에 한명으로 한정한다. 수혜자는 학교에서 정하여 보고한다.
② 수련생이 아니어도 운영위원이나 이사 혹은 전 학회장의 지도학생인 대학원생 학회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술대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는 최대 10명까지로 하며, 신청한 학교 선착순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아시아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수 http://jahp.wdc-jp.com/english/achp2016.html
②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대회 발표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acceptance letter등의 내용을 khpa2016@naver.com 으로 전송

<제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 관련 링크>

- 제6차 아시아건강심리학회(ACHP) 학술대회 홈페이지 : <http://jahp.wdc-jp.com/english/achp2016.html>
- ACHP 2016 온라인 등록 : <http://cos.congre.co.jp/achp2016/e/>
- ACHP 2016 초록 접수 : <https://cos.congre.co.jp/achp2016/rege/reg.php>

공지 사항

2) 2016년 건강심리학회 제52차 춘계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 한국건강심리학회 70주년 행사에서 분과 심포지움으로 건강심리학회 제 52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정	2016년 05월 20일 (금)
장소	코엑스
주제	「다양한 현장에서 건강심리학자의 역할」

1.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접수 (초록 제출)

- 1) 접수기간 : 2016년 04월 08일(금) - 04월 22일(금) 24:00 까지
- 2) 포스터/구두발표 접수 : 양식(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에 맞추어 초록(10줄 이내) 작성 -> pyohj0824@gmail.com 제출
- 3) 메일 제목 : [구두] 저자(소속)_논문제목 / [포스터] 저자(소속)_논문제목

2. 포스터/구두발표 심사(약 7일) : 04월 29일 발표 예정

- 심사 완료 후, 개별 E-mail로 심사 결과 및 최종원고 양식 발송

3.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최종 원고 제출 기간 : ~05월 08일(일) 24:00 까지

4. 이중게재

- 타 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학술논문(포스터/구연/학술지 게재 등)은 본 학술대회에서 중복해서 발표할 수 없습니다.
-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구연 발표를 한 이후 추가 및 보완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 할 수 있습니다.

5. 발표 관련 준비사항

*포스터

- 1) 포스터는 전지 크기(60 X 90cm)로 발표자가 직접 제작하여 준비
- 2) 배부용(핸드아웃) 준비 : A4 사이즈 50부,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

*구연

- 1) 핸드아웃은 직접 준비해오시는 것이 기본이나, 구두 발표자에 한해서 학회 측에서 출력하여 배포 가능합니다.
직접 출력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학회 발표본(PPT 양식으로 자유롭게 편집) 파일을 5월 11일(수)24:00까지
학술간사(pyohj0824@gmail.com)에게 제출 바랍니다.

문의 : 학술간사 표현진 (pyohj0824@gmail.com)

연구회 소식

<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 : 12월 월례회 >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쌍문동 캠퍼스 차미리사 기념관 119호
- 강사 : 김도연 (마인드플니스 심리상담연구소장, 심리학박사)
- 주제 : 지금 이대로 행복해지기: 마음챙김과 긍정심리학의 만남
- 강의소개: 마음챙김-긍정심리연구회 12월 월례회는 “지금 이대로 행복해지기: 마음챙김과 긍정심리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마인드플니스 심리상담연구소 김도연 소장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교와 기업 장면에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실습시간을 통해 마음챙김과 긍정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을 살펴보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마음챙김-긍정심리연구회 15년 12월 월례회 사진

회원 투고

< 늙은 말의 지혜 (老馬之智) 로! >

손정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016년 3월 9일 수요일 아침 9시 서울발 오키나와행 OZ 171기에서 파란 하늘과 구름을 내려다 본다...정년퇴임 기념(?) 여행이다...이렇게 학기중에 그냥 여행은 난생 처음이다. 자연히 지난 날들의 내 하늘들을 돌아보게 된다. 2월 26일 퇴임식 전날 까지도 한국연구재단에 업로드할 보고서로 바빠 지냈다. 정년퇴임 때쯤이면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지!...). 어쨌든 심리학 공부를 해서 임상심리학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교수로 전념할 수 있었으며,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원고에서는 전문적인 회고 보다는 학과 및 학회 관련 지극히 개인적인 몇가지 스토리만 소개할까 한다).



내가 심리학과 학생일 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개 대학에만 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철학을 전공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 생각으로 철학은 너무 관념적으로 여겨져서 심리학과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다른 길로 가면 심리학 전공에 대한 미련으로 평생 후회 할 것만 같아서, 고생은 되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대학원 진학 경로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 때에는 사회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모임에서 그 분야 전공의 한덕웅, 홍대식 선생님께 사회심리학 전공 의사를 말씀드렸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분이 동시에 크게 반대를 하셨다. 그저 반대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낼 지경이었다. "사회심리학은 안 돼!...(중략) 자네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해야 돼!!! ...(많은 스토리는 생략)"...그런데 임상심리학에 관해서는, 학부 3학년 때 국립정신병원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전공만은 안 할 거라고 일찌감치 다짐했던 전공분야였다! 거기 열악한 환경 등이 마음속에서 일찌감치 거리를 만들었던 터였다. 그런 상의 과정을 거쳐 반 강제적으로 임상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잘한 일이었고, 두 분의 분노(?)에 감사드린다.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하면서, 모두 유쾌하게 회상한다.

석사과정에서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도 개인적 구성개념 심리학 (George A. Kelly) 이 마음에 쏙 들었다. 석사과정 학생은 처음 1년 동안 나 하나 밖에 없어서, 매주 여러 이론을 혼자 발표하느라 정말 힘들기도 하였는데, 이 이론을 발표할 때 교수님이 가장 흥미 있어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다. 이후 이 이론은 석사 논문은 물론이고 정신분열증 주제의 박사논문에까지 적용되고, 오늘날 까지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는 연구를 이어오게 되었는데 (이 분야는 독자적인 저널과 세계 학회도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소중한 학문적 인연으로 생각된다.

그 후 서른을 갓 넘긴 나이인 1980년 10월 (5.17이 나던 해여서 10월에야 개강) 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야 말로 까만 머리카락만이 무성하던(?) 때였다. 1979년에 신입생이 들어왔던 때라, 학과의 기틀 (여러 가지 제도, 실험실 등등) 을 마련하는데 먼저 오신 홍대식 교수님을 도와 온 힘을 기울였다 지금도 학과 기틀을 세우는 창설 멤버였던 점은 자랑스럽다. 우리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넓은 실험실과 강의실을 보유할 수 있었다.

(계속)

회원 투고

< 늙은 말의 지혜 (老馬之智) 로!>

1980년대 초반에는 대학원이 인가되면서, 바이오피드백에 관심을 가지게 된 큰 계기가 있었다...(중략) 어렵사리 바이오피드백 도구를 들여오고...대학원생들의 석사논문을 학회지에 실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피드백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 후 1990년대 초반에 건강 심리학회를 만들기 위해 3년 공부 모임에 흔쾌히 참여한 것도 바이오피드백이 계기가 된 행동의학 연구의 연속으로 생각된다.

건강심리학회를 창설하기 위해 우리(10여명)는 매달 건강심리학 관련 주제 세미나를 순천향병원과 국립재활병원 등에서 가졌다. 세미나 후에는 건강을 위하여! 술도 마시고, 끝없는 토론도 계속하였다. 그 때의 다양한 에피소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담배를 끊고, 등산도 하고, 검도를 시작하였다. 건강심리학회의 창설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깊은 생애적 사건이다.

건강심리학회가 창설이 되자 나는 수련 위원장을 맡아서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증 제도와 수련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 뒤 편집위원, 이사 등으로 기여를 하다가 2년 임기의 회장을 5대와 6대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데, 4대 후반기 1년 회장 임기도 내가 맡게 되어 5년이나 회장 직을 수행하였는데, 함께 일한 임원진과 여러 간사들의 노고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건강심리학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특징인데, 이는 초창기에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여 정말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 내에서도 기여도가 3위 정도로 성장한 점은 정말 자랑스럽다.

1996년도에는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건강에 관한 종합 학문적 접근" 춘계 심포지엄을 중앙대학교에서 갖게 되었다. 모두 12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나는 "긴장형 두통과 EMG 바이오피드백"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때 에피소드 하나. 우리의 초청으로 황수관 교수의 "엔돌핀과 건강"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발표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특히 고 이임갑 회원의 과학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신문기자들은 엔돌핀과 황수관 박사에 꽂혀서, 대서특필로 이어지고, 이를 계기로 황수관 박사는 세상의 황수관이 되었다... 우리 건강심리학회의 기여는 끝이 없다....

건강심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2004년 8월에는 제 2차 아시아 건강심리학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10여 개국 회원들의 참여로 성대하게 열렸는데, 우리 건강심리학회 회원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때이기도 하였다. 이 때 만난 일본의 몇 회원을 그 후 2010년 내가 한국 심리학회 회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간 일본 심리학회 제 74회 학술대회(오사카대학교)때 임원진 만찬 연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너무나도 반가운 해후를 한 기억이 난다. 2011년 동일본 쓰나미 참사 때는 한국심리학회와 일본심리학회에 전세계 심리학회 중에서 맨먼저 위로의 편지를 보내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재난에 대한 우리 한국심리학회의 당연한 관심의 표명이었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회를 세 개 창설한 경험이 있기도 하다. 첫째는 임상심리학회의 행동의학 연구회, 둘째는 건강심리학회의 명상 심리 연구회, 셋째는 임상심리학회의 학교진로심리 연구회이다.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윤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윤리강령을 만들게 되어, 그 후 한국 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을 만들 때에도 역할을 하였다.

학회 활동 경험 몇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과 학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년 한국심리학회 신년 교례회에서도 대부분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보게 되어 더욱 반가운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도 고맙다.

회고해 보건대,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심리학자이자 지도교수이다. 120 여명의 대학원생 배출 (국내외 교수, 실무 임상심리학자등으로 활약), 160여편의 논문 출판, 30여권의 책 출판,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최우수논문상 및 업적상 등의 과분한 상...그리고 지금의 정년후 연구교수... ACT와 메타포, 감정이입, 하이쿠와 시조, 자비 등에 관한 새로운 관심분야의 생성...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이제는 천천히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늙은 말의 지혜 (老馬之智)"로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된 학회와 대학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정진하려고 다짐해 본다. 매년 노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회원 소식 _ 취임 및 수상

1

한국건강심리학회 서경현 학회장님
2016년 삼육대학교 연구처장 취임

http://www.syu.ac.kr/web/kor/intro_f_08_01

삼육소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HOME > 삼육소개 > 행정본부 > 연구처 > 연구처 소개

연구처



안녕하십니까?
연구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처장 서경현 교수

연구처는 본교의 발전과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학술활동 지원과 연구비 관리 뿐만 아니라 부설 연구소 및 자율 연구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을 통하여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중앙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연구비 관리와 체계적인 업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치 : 백주년기념관 4층
- 전화번호 : 02-3399-3906, 3928
- 팩스번호 : 02-3399-3929
- 홈페이지 주소 : <http://syure.syu.ac.kr/research>

2

한국건강심리학회 현명호 감사님
2016년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장 취임

http://www.cau.ac.kr/01_intro/institution/administration/tab04/administration15.php

□ 사회교육처 교육기획팀

교육기획팀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안성),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능력개발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신규 프로그램의 기획, 기존과정의 수치분석을 통한 리모지서닝 전략수립, 광고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사회교육처 전체의 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최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평생학습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치

- 101관(영신관) 1층 112호

□ 전화번호

- 대표전화 : 02-820-6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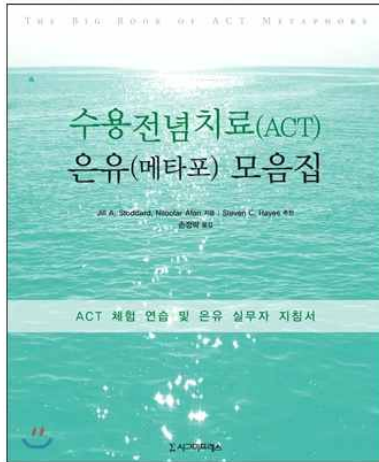
성명	직위	연락처	업무
현명호	처장	02-820-5125	사회교육처 전체 총괄
이창훈	팀장	(02)820-6125	행정업무 총괄
최재훈	주임	(02)820-6127	전략기획
조규완	주임	(02)820-6615	신규과정기획
추연욱	팀원	(02)820-6256	사회교육처 회계/예산 업무
이수정	팀원	(02)820-6257	사회교육처 회계/예산 업무
유소연	팀원	(02)820-6129	기획/광고홍보

3

한국건강심리학회 김청송 수석부회장님
경기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 수상



회원 소식 _ 도서 출간



< 손정락 회원 도서 출간 >

수용전념치료(ACT) 은유(메타포)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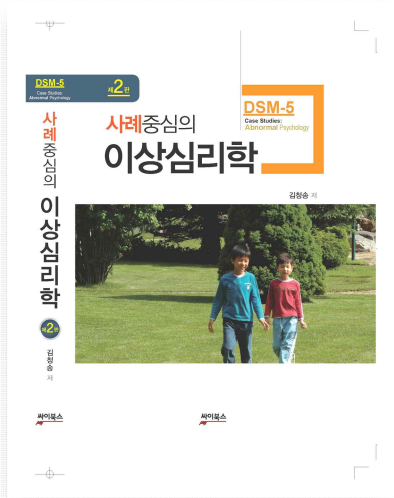
: ACT 체험 연습 및 은유 실무자 지침서

Jill A. Stoddard, Niloofer Afari, Steven C. Hayes (저) |

손정락 (역) | 시그마프레스 | 2016년 02월 출간

책 소개

ACT 과정들에 대한 종합적 개관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행동 취하기를 촉진시켜 주는 많은 새로운 은유와 체험 연습을 제공하며, 상이한 내담자 집단에 맞춰진 각본과 치료 회기에서 종종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제공한다.



< 김청송 회원 도서 출간 >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DSM-5) 제2판

김청송 (저) | 도서출판 싸이북스 | 2016년 01월 출간

책 소개

1) 사례연구의 추가, 2) 핵심 질문의 선명성 부각, 3) 해설의 정교화, 4) 원인과 치료의 심층분석, 5)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기타 문제 추가를 통해 DSM-5에 입각한 이상심리학의 과학적, 실용적, 입체적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추가·수정·보완되었다. 제2판을 통해 이상심리학의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법을 얻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김정호 회원 도서 출간 >

마음챙김 명상 매뉴얼 : 이해, 성장,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

김정호 (저) | 솔과학 | 2016년 02월 출간

책 소개

마음챙김과 (집중)명상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마음챙김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마음챙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음챙김 수행을 마음챙김의 일상적 수행과 명상적 수행으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 소식 _ 도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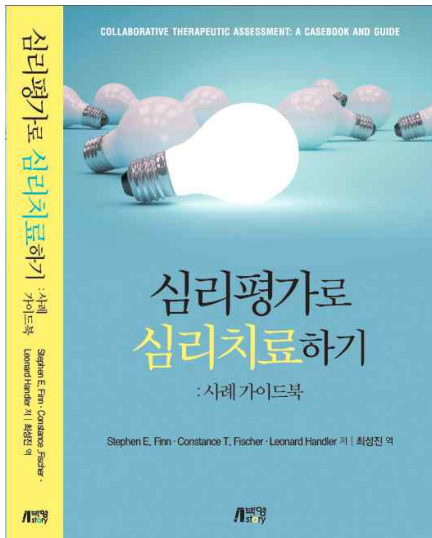
< 서수연 회원 도서 출간 >

건강심리학 제9판

Shelley E. Taylor (저) | 서수연, 박준호, 심은정, 조성근, 한경훈 (역) | 시그마프레스 | 2016년 03월 출간

책 소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들을 통해 대인관계, 건강 행동,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 심리적인 요인과 원리들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최신 연구와 이론을 잘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도 적용하여 학생들이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최성진 회원 도서 출간 >

심리평가로 심리치료하기: 사례 가이드북

Stephen E. Finn, Constance T. Fischer, Leonard Handler (저) | 최성진 (역) | 박영사 |

책 소개

이 책은 4개 국가의 전문가가 실시한 협력적 치료적 평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C/TA이다. II부는 아동 청소년의 사례를 보여준다. III부는 협력적 치료적 신경심리평가, 양육에서의 치료적 평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평가의 특수사례를 소개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내내 느꼈던 감정은 따뜻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심리평가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까?' 치료자는 내담자가 가져오는 질문에 답하고, 내담자를 자신에 대한 전문가로 존중하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성장하도록 했다. 나는 이러한 치료적 평가 과정을 보며 매우 놀랐다.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을 하려는 분들에게 이 책이 실제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심리학회 소식지 원고 모집 안내>

건강심리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매 분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6호 소식지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 제반과 관련된 사실(칼럼)**을 모집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한글문서 1장 분량)
- ▶ **회원 동정 및 홍보 사항**을 모집합니다. 출판, 개원, 퇴임을 비롯한 사소한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 **기타 시, 수필, 사진, 그림, 평론 등 다양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원고를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건강심리학회 홍보부(healthpsy2016@naver.com)로 보내주시시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건강심리학회 홍보이사 한경훈